

03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광주형’ 미술이란 무엇인가 -

김허경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미술학 박사)

3.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광주형' 미술이란 무엇인가-

예향남도에 자리한 광주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역의 역사성, 전통성, 지역 공동체의 삶을 매개로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혀왔다. 광주는 2002년 '문화수도' 육성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중심점이자 문화예술 메카를 지향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2014년부터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광주형' 모델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정책에서 '광주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광주형'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형' 근현대미술자료관 설립,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안해 본다.

1. '광주형 미술'이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광주다움, '광주형'이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일반적으로 '형(型)'의 의미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이루는 유형(類型)이나 형태(形態)"를 일컫는 말로 모형, 본보기를 뜻한다.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특성이 담긴 형태' 또는 '완성된 작품을 줄여서 만든 본보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형'은 어떠한 형태, 또는 본보기로 정의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 측면에서 '광주문화의 정체성'을 반추해보면 '광주형'이라 지칭할 수 있는 고유한 예술적 감성을 발견하게 된다.

광주·전남 화단은 소치 허유 이래 남종문인화의 전통과 함께 '예향'의 뿌리를 내린 후 약 1백년 동안 미산 허형,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으로 화맥을 이어왔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남도 수묵화의 전통적 화법의 기반 위에 서구풍의 근대미술을 받아들이면서 '광주형 미술'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30년대 오지호는 우리의 자연풍광을 유기적인 생명체로 이해하고 자연에 입각한 '사실(寫實)'과 색채를 탐구하여 광(光)이 회화의 본질을 이루는 근원임을 강조하였다. 오지호의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은 정신적으로 문기(文氣) 짙은 산수의 바탕에 서양의 기법을 접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을 맞이한 광주화단은 한국전쟁기라는 격동기 속에 화단의 주류로 자리해온 구상미술에서 벗어나 비구상미술을 시도하였다. 김환기, 양수아, 강용운의 선도적인 추상화법은 의식보다는 감성을, 논리보다는 행위를 외치며 한국 현대미술의 물꼬를 열었다. 무엇보다 1980년대 민중미술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작가들에 의해 민중의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민중미술은 광주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원(解冤)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대동과 상생을 확산시켰던 미술인들의 현실 비판과 참여, 저항정신의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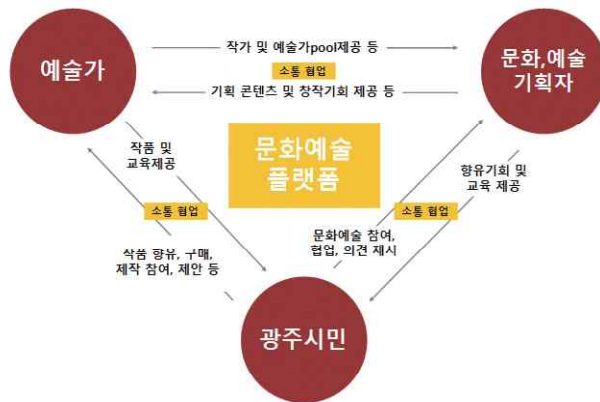
이처럼 광주 미술인들은 스스로 직면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외세주의에 편승하거나 보편주의를 거부하는 예술이념을 추구해왔다. 이들은 오랜 공동체적 역사 경험의 토대 위에 소외와 실존, 분노와 슬픔을 이겨내고자 줄곧 '의로움'을 내세웠으며 이는 예술적 풍토로서 민주, 인권, 평

화의 정신으로 뿌리내렸다. 광주 지역민의 공통적인 삶에서 묻어나는 역사성의 발현은 바로 ‘광주형’ 즉 광주 문화예술의 고유한 특성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자양분이다.

II.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운영(안)

광주광역시시는 2021년 1월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그린·휴먼 등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할 10대 핵심시책을 살펴보면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뿐 아니라 5·18 3법 개정을 계기로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본격 추진해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체험공간 조성,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1년을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정책은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광주형’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본다.



〈‘광주형’ 문화예술 플랫폼 구성(안)〉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재구성하여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서 문화예술플랫폼이란 유·무형의 기반(Base)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유용한 사업 방식으로 지역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틀(Framework)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주지역의 예술인, 광주시민, 문화예술기관들이 공급자, 이용자, 운영자로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거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광주 문화예술의 주체자인 예술인의 상황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로 부터 열악

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예술 활동에 관한 안전성, 제도화된 구조의 혜택도 미흡한 상황이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외각에 있던 예술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1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실행되었지만, 여전히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기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술가들의 생활 기반안정과 직업역량 강화,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예술가들의 문화적 활동을 보장할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사례를 검토하거나, 컨소시엄, 사업 기관, 최저수입, 연금 조례, 미술인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안정성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기관의 독자적 활동이나 운영이 아닌 협업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주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민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광주형'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포럼을 발족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총 10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협의체>와 4개의 분과 위원회로 이루어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ACCF)>를 통해 체계적·종합적·실제적인 방안을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민·관의 원활한 소통창구인 <광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함께 현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동반되어야 한다.

Ⅲ.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 방안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 및 가치를 창출하려는 방안으로 '광주형' 문화예술의 자생성과 아이덴티티 확립을 강화할 수 있는 '광주형' 근현대미술 자료관(가칭)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광주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형 통합 홍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 및 운영 모델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화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1. '광주형' 근현대미술 자료관(가칭) 설립

■ 현황

최근 한국미술계는 전시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유기적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다. 아카이브를 통해 작가의 생애와 화업에 관한 자료수집, 기록을 구축하는 '아트 아카이브(Art Archive)'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다.¹⁾ '역사는 기록으로 말한다'라

1) 2005년은 인사미술공간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에 이어 2008년 김달진 미술자료실이

는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국공립부터 사립미술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들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미술관·박물관의 운영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 필요성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에서 오지호, 김보현, 김환기, 천경자, 양수아, 배동신, 오승우, 오승윤 등은 중앙화단의 지향이나 추종 현상이 아닌 그들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간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보존·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한 채 대다수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미술관에 기증되었다. 지난해 탄생 100주년 맞은 양수아, 배동신 작가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품과 기록 자료들은 대중과 공유되지 못하고 대부분 유족에 의해 사적으로 관리되었다. 작가의 예술세계를 증명하는 실물자료(기록)를 소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유산으로 등록,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장소가 없다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작품뿐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공개하지 못한 유일성을 지닌 1차 자료들에 관한 보존, 연구할 수 있는 저장소 공간이 시급하다.

■ 기대효과

광주미술 아카이브는 과거의 증거로서 역사성을 지니는 동시에 하나의 작품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전시, 교육, 학술, 출판 등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보존의 기능뿐 아니라 기초 연구와 수집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와 맞닿는 ‘광주형 미술’ 자료의 전문화 및 소장품의 특성화를 갖출 수 있다. 광주미술 아카이브를 통한 ‘광주형’ 근현대미술 자료관(가칭) 설립은 동시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 즉 ‘광주형 미술’을 구축할 수 있다.

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화

■ 현황

도시 브랜드 활성화 전략의 기본은 도시 브랜드 비전과 미션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 정립에서 시작된다. ‘광주형’ 브랜드는 창의도시 마스터플랜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정책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미디어 338, 홀로그램극장, 미디어아트 놀이터 등 6개의 특화공간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레지던시프로그램, 창작 랩 운

‘미술자료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비디오 아카이브 2천여 점을 소장한 백남준아트센터를 개관하여 주목받았다. 이후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설립,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문화를 중심으로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필요성

시민들의 삶 속에서 미디어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시환경조성에 따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BI 및 슬로건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및 각종 홍보물,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전략에 적용해 광주만의 도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창의벨트 권역과 광주 폴리와의 상호연계에 의한 랜드마크 조성, 광주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집중된 문화전당 주변권역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형' 브랜드 조성이 필요하다.

■ 추진전략

첫째,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시작된 '광주폴리 프로젝트'의 경우 2013년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반 폴리(Urban Poly)와 사업콘텐츠를 연계하여 '광주형' 미디어아트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간다.

둘째, 핵심거점지역에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야외 야간경관 조성, 야외 문화행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전당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광주형' 도시브랜드 관리시스템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아이 서울 유'와 같이 '광주형'의 상징성을 담아낸 미디어아트 사인물, 디자인을 개발하여 통합적 관광콘텐츠 개발 및 도심관광 사업에 활용한다.

넷째, '광주형' 도시 브랜드 전담조직은 '문화전당권역 도심관광 활성화 협의회' 뿐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광주문화재단, 광주 동구 등 9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아트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가동한다.

■ 기대효과

현재 계획 운영 중인 창의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랜드마크를 구성하고 어반플레이(도시문화콘텐츠 창작)을 시도하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한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의 중심에 위치한 전당권역, 5·18민주광장을 일상과 관광이 결합된 선진 관광형 문화광장(Arts Square) 조성함으로써 인권·평화의 도시, 빛의 도시를 아우르는 '광주형' 랜드마크를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광장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내외 지역 관광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광주형' 브랜드화 구축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입지뿐 아니라 '광주형'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한다.

정리해보면 지역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중심도시 광주',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광주'는 바로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의 활성화에 달려있다. 향후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사업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가 더해진다면 '광주형' 문화예술플랫폼 활성화 및 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